

## 음악교육에서의 공감에 관한 고찰

석 문 주\* · 문 경 숙\*\* · 최 미 영\*\*\*

본 연구는 공감의 구성요소와 공감능력의 측정방법을 살펴보고, 음악과 관련된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와 프로그램 사례를 고찰한 후, 공감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음악지도방향과 음악활동에 대해 제언함으로써 향후 음악교육에서의 공감능력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감의 구성요소는 크게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로 나누어지고,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림/이야기 방법, 질문지법, 생체학적인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음악 관련 공감 연구는 인간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의 효과에 대한 상관관계연구와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음악을 통한 공감교육에 대해 제언하였다.

※ 주제어: 공감, 공감의 요소, 공감능력의 측정, 음악 관련 공감

### 차 례

#### I. 들어가기

#### II. 공감 요소 및 공감능력 측정

1. 공감의 개념
2. 공감의 구성요소
3. 공감능력의 측정방법

#### III. 음악 관련 공감 연구

1. 선행연구 고찰
2. 음악 그룹 상호작용 프로그램

#### IV. 음악에서의 공감교육을 위한 제언

#### V. 나가기

#### 참고문헌

\*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 공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 대구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choimiyoung@dnue.ac.kr)

## I. 들어가기

TV 드라마나 영화의 행복한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신나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어깨가 저절로 들쭉거린다. 슬픈 음악은 듣는 이로 하여금 슬픈 느낌이 들게 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이러한 공감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공감은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한다’는 의미로,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느끼는 것을 통해서 지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감이 인간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레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사람들 간에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약화되고 있다. 과거의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는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집단 중심의 생활환경 속에서 이웃들은 서로 잘 알고 있었으며, 굳이 내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생각이나 느낌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형제자매의 감소 등의 변화로 가정에서 제공하던 정서적 지원이 약화되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직접적인 대인관계를 통한 공감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과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최미영, 2017).

현대사회에서 공감의 부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요즘 심각한 학교 문제로 인식되는 왕따, 폭력, 비행 등의 학교 부적응도 공감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생긴 결과로, 이는 남의 아픔이나 기분을 느낄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Gordon, 2009). 더욱이 공감의 부재는 관계 단절, 인간 소외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심해질수록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의 과부족 현상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정재영, 2010).

문화연구가 마르코 비숍(Marco Bishop)은 저서 <두려움 없는 미래(Future comes the Crisis)>에서 감정적 소통과 공감을 미래 사회의 중요한 역량의 하나로 간주한다. 최근에는 EQ(Emotional Quotient)나 SQ(Social Quotient)를 IQ(Intelligence Quotient)보다 중요한 학업과 성공의 지표로 본다. 미래의 인재는 단순히 문제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공감 교육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한다(Gordon, 2009).

공감교육의 중요성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질랜드

드는 대인 관계하기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고, 음악교육과정에서 음악으로 소통하고 해석하기를 하나의 핵심 학습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예술교육과정은 소통을 교육과정의 구성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음악교육과정은 음악을 통한 사회적 발달을 강조하고, 핀란드의 음악교육과정은 음악교과를 통해 다루어야 할 10개의 내용 중 하나로 함께 음악 만들기를 제시하여 음악을 통한 사회적 유대감의 증진을 도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교과역량 중 하나로 음악적 소통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은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소리로 표현한 예술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다. 음악적 상징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음악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타인의 마음을 읽고 조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구성요소와 측정방법 및 음악 관련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음악을 통한 공감교육에 대해 제언(提言)함으로써 향후 음악교육에서의 공감능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공감 요소 및 공감능력 측정

### 1. 공감의 개념

공감(共感, empathy)의 어원은 안을 의미하는 ‘en’과 연민을 자아내는 힘을 뜻하는 ‘pathos’가 결합된 그리스어 empathia에서 온 것으로, 마음 속에서 연민을 느낀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개념이 학계에 처음 등장한 것은 독일의 미학자 Vischer가 인간과 예술작품 간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독일어 Einfühl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이다. Einfühlung은 empathia와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느낀다(feeling-into, in-feeling)는 의미를 가진다(박성희, 2004; Barrett-Lennard, 1981; Laird, 2015).

공감은 문자 그대로 ‘공유된 감정’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감정을 거의 동일한 상황으로 지각하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공감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고, 개념적 특징이 복잡하여 동정, 투사, 감정이입과 같은 유사

개념들과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감은 동정처럼 타인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고, 투사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타인에게 귀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이 자신에게 전해지는 것이며, 감정이입처럼 자신과 타인의 구별 없이 동일시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구별이 되는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르다(박성희, 2004; Eisenberg & Strayer, 1987).

## 2. 공감의 구성요소

공감의 구성요소는 크게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Goleman, 2006). 공감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단일 차원으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 차원의 개념이다.

### 1) 인지적 요소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공감적 정서와 행동을 이끌어내는 지적인 작용이다. 인지적 공감을 설명하는 개념에는 역할 수용, 탈 중심화, 감정의 재인, 관점 수용, 상상력 등 다양한 용어들이 발견된다. 공감을 인지적 개념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학자 미드(Mead, 1934)는 공감을 타인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인 조망을 취해보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역할 수용(role-taking)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역할 놀이를 통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보는 경험을 통해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추론하여 상황에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여 타인의 생각과 반응을 예측하고 그것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박성희, 2004).

인지발달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피아제(Piaget)도 공감의 인지적 속성을 부각하였다. 피아제와 인헬더(Piaget & Inhelder, 1969)는 아동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탈 중심적인 사고로 변화되면서 공감능력이 발달된다고 하였다.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인식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공감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나,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식별해내는 탈 중심화(decentering)가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공감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설명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 감정의 재인(recognition of emotion)은 페쉬바흐(Feshbach, 1975)가 제시한 공감의 필수적인 선행인지조건으로, 타인의 감정 상태를 식별하고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다. 타인의 감정을 정확

하게 파악하여 재인해내기 위해서는 언어적 내용, 상황적 단서, 표정이나 몸짓 등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에 민감해야 타인의 감정 상태를 추론할 수 있다. 유사한 입장에서 로저스(Rogers)는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해하는 정확공감(accurate empathy)의 개념을 강조한다.

데이비스(Davis, 1983)는 인지적 공감의 요소로 관점 수용과 상상력을 제시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관점 수용(perspective-taking)은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타인을 도와주거나 협력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킨다. 상상력(fantasy)은 허구적인 상황을 상상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느낌을 머리로 생각하여 이해하는 것이다(박성희, 2004; 조한익, 이미화, 2010).

공감의 인지적 속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모두 공감을 지적인 능력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감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인지해내는 기능과 관련이 되고, 그 인지과정에서 지적인 추론과 상상력이 동원되며, 자신의 관점에서 타인의 관점으로 관점이 이동되는 인지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 2) 정서적 요소

공감의 정서적 요소는 타인과 비슷하거나 같은 감정 상태를 가지는 것이다. 마치 감정이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타인과 함께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서적 공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정서적 공감의 과정 대부분은 반사경 신경계(mirror neuron system)에 의해 일어난다.

공감에 의한 정서적 반응은 크게 타인과 동일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타인과 일치하는 감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타인과 동일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정서적 공감을 정서 감염(emotional contagion)이라고 한다. 가상의 상황에서 타인과 자신을 일치시켜 타인의 감정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그 감정을 떠올리는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정서 감염의 한 형태로 은연중에 상대방의 표정과 같거나 비슷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화를 하거나 웃는 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는 행동을 동작 모방(motor mimicry)이라고 한다(박민, 2012; 박성희, 1992).

공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일치를 표현하는 용어로 정서적 공명(emotional resonance)이 있다. 코훗(Kohut, 1978)은 공감을 인간 체험에 대한 인

간적인 메아리라고 하였다. 공감이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前)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소리가 공명하듯이 자연스럽게 퍼진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지적으로 인식하기 전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의 정서적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타인과 감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부합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대리적 정서(vicarious emotion)라고 한다. 이것은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경험하지만 타인과 동일시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대리적인 감정이다. 로저스는 공감을 마치(as if)라는 사실을 망각함이 없이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공감의 대리적인 속성을 드러내었다(박성희, 2004).

데이비스(1983)는 공감의 정서적 측면을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으로 제시하였다.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을 느끼는 것이다.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은 타인이 고통을 받거나 불행한 모습을 봄으로써 힘들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경향이다.

공감의 정서적 속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타인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정서적 공유이다. 따라서 공감은 타인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반응이고, 그 정서적 반응은 타인과 부합하거나 대리적인 것이다.

### 3) 의사소통적 요소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소는 내적으로 이루어진 공감이 외부로 표현되고 상호소통하게 되는 작용이다. 의사소통적 공감은 공감을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해하거나 느끼는데서 그치지 않고 전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타인의 내면세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이해한 바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공감의 사회기술적 요소로, 타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와 공유에 뒤따르는 적절한 행동적 반응의 유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행위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소를 가장 먼저 제시한 로저스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필요충분조건으로 공감의 전달을 언급하였다. 공감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담자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그렇게 느낀 경험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카르크후프와 트루악스(Carkhuff & Truax)는 의사소통적 공감을 내담자의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느낀 바를 언어로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상담자의 지각된 공감이 내담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상담자가 언어로 표현하는 공감의 정확성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

를 개발하였다(박성희, 2004).

의사소통적 공감에서 실제 의사소통의 수단은 언어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 이해한 바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으로 전달되는 최종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3. 공감능력의 측정방법

공감능력의 측정방법은 추상적인 개념의 공감을 측정 가능한 조작적인 정의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감능력을 측정할 때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 여러 측정 장면과 상황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그림/이야기 방법

그림/이야기 방법은 피험자에게 이야기와 더불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느낄만한 정서를 나타내는 그림을 제시한 후, 피험자로 하여금 이야기 주인공의 정서에 이름을 붙이고 피험자 자신이 그 주인공에 대해 느끼는 정서를 보고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한 가장 고전적인 척도는 페쉬바흐와 로이(Feshbach & Roe, 1968)가 제작한 정서상황검사(Affective Situation Test of Empathy)이다.

이 척도는 공감을 동일 정서의 공유로 본다. 아동에게 일련의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마다 그 이야기를 예시해주는 3개의 슬라이드를 함께 제시한다. 기준이 되는 정서는 행복, 슬픔, 분노, 공포의 4가지 감정으로, 각 감정은 2개의 다른 이야기로 총 8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각각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 아동들에게 이야기 주인공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고, 아동들이 이야기 주인공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주인공의 감정과 일치하면 공감점수를 부여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는다.

#### 2) 질문지법

질문지법은 느낌이나 생각을 파악하는데 간단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정서 등 주관적 체험세계를 확인하는 공감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지법 측정도구가 있는데, 대표적인 도구로 Hogan

Empathy Scale, Questionnaire Measure of Emotional Empathy와 Index for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Accurate Empathy 등이 자주 사용된다.

(1) Hogan Empathy Scale(HES)

호간(Hogan, 1969)은 공감을 타인의 관점을 취해볼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공감척도(Empathy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캘리포니아 인성검사,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캘리포니아 대학인성평가연구소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얻은 Q-sort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감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문항들을 선정하여 제작되었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입증된 도구로, 개발된 이후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Questionnaire Measure of Emotional Empathy(QMEE)와 Index for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IECA)

메흐라비안과 엠프스타인(Mehrabian & Epstein, 1972)은 공감을 대리적 정서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공감척도(QMEE)를 개발하였다. QMEE는 7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지는데, 정서감염에 대한 민감성, 낮은 타인에 대한 느낌의 인식, 극단적인 정서적 반응성, 타인의 긍정적 정서경험에 감동하는 경향성, 타인의 부정적인 정서에 감동하는 경향성, 동정적인 경향성, 곤경에 처한 타인과 접촉하려는 의지 등을 측정한다.

브라이언트(Bryant, 1982)는 6살 이상의 아동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공감척도(IECA)를 개발하였다. IECA는 QMEE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통찰력의 정확성보다 정서적 반응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울고 있는 소년을 보면 울고 싶다”와 같은 공감에 대한 문항내용과 함께 “같이 놀 친구가 없는 소녀를 보면 슬프다”와 같은 동정 및 “상처를 입은 소년을 볼 때 화가 난다”와 같은 개인적 고통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그림 1]).

1. 함께 놀 친구를 찾지 못하는 소녀를 보면 불쌍한 느낌이 든다.(It makes me sad to see a girl who can't find anyone to play with.)
2. 남들이 보는 앞에서 껴안고 키스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People who kiss and hug in public are silly.)
3. 행복하다고 우는 소년들은 바보 같다.(Boys who cry because they are happy are silly.)

4. 내가 직접 선물을 받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선물 꾸러미를 뜯는 것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다.(I really like to watch people open presents, even when I don't get a present myself.)
5. 우는 소년을 보면 왠지 울고 싶어진다.(Seeing a boy who is crying makes me feel like crying.)
6. 다친 소녀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I get upset when I see a girl being hurt.)
7. 다른 사람이 웃으면 이유를 모르더라도 따라 웃는 편이다.(Even when I don't know why someone laughing, I laugh, too.)
8. TV를 보면서 울 때가 있다.(Sometimes I cry when I watch TV.)
9. 행복하다고 우는 소녀들은 바보 같다.(Girl who cry because they are happy are silly.)
10. 다른 사람들이 왜 기분 나빠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It's hard for me to see why someone else gets upset.)
11. 다친 동물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I get upset when I see an animal being hurt.)
12. 함께 놀 친구를 찾지 못하는 소년을 보면 불쌍한 느낌이 든다.(It makes me sad to see a boy who can't find anyone to play with.)
13. 어떤 노래들은 너무 슬퍼서 울고 싶게 만든다.(Some songs make me so sad I feel like crying.)
14. 다친 소년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I get upset when I see a boy being hurt.)
15. 어른들은 슬퍼해야 할 일이 없는데도 울 때가 있다.(Grown-ups sometimes cry even when they have nothing to be sad about.)
16.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대해 주는 것은 어리석다.(It's silly to treat dogs and cats as though they have feelings like people.)
17.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척 행동하는 친구를 보면 화가 많이 난다.(I get mad when I see a classmate pretending to need help from the teacher all the time.)
18.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아마 친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Kids who have no friends probably don't want any.)
19. 우는 소녀를 보면 왠지 울고 싶어진다.(Seeing a girl who is crying makes me feel like crying.)
20. 사람들이 슬픈 영화나 책을 보면서 우는 것을 보면 우스운 생각이 든다.(I think it is funny that some people cry during a sad movie or while reading a book.)
21. 과자를 먹고 있을 때 누가 하나 주었으면 하고 쳐다보더라도 한 개도 주지 않고 혼자 다 먹을 수 있다.(I am able to eat all my cookies even when I see someone looking at me wanting one.)
22. 친구가 학교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 선생님께 벌 받는 것을 보아도 마음이 별로 아프지 않다.(I don't feel upset when I see a classmate being punished by a teacher for not obeying school rules.)

[그림 1] IECA 문항

### (3)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T)

데이비스(1983)는 공감을 단일 개념으로 파악하기보다 다차원적 특성을 가진 복합적 개념으로 보고 공감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공감의 하위 요소를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네 가지 변별 가능한 특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대인관계 반응도 지수(IRT)를 개발하였다. 네 가지 하위 척도 중 관점 취하기 척도와 상상하기 척도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고, 공감적 관심 척도와 개인적 고통 척도는 공감의 정서적 요소를 측정한다. 관점 취하기 척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타인의 관점이나 견해를 취해 보는 경향을, 상상하기 척도는 드라마, 영화, 연극, 책 등 허구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대입시켜 느낌을 상상해보는 경향을 각각 측정한다. 공감적 관심 척도는 불행을 겪는 타인에게 연민과 관심을 갖는 경향을, 개인적 고통 척도는 타인의 부정적인 경험을 보았을 때 불안, 걱정, 공포 등과 같은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경향을 각각 측정한다.

### (4)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Accurate Empathy

의사소통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카르크후프와 트루악스(1965)는 정확공감척도(Scale for the Measurement of Accurate Empathy)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공감을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상담자의 공감 전달의 정확성 여부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척도는 상담자의 공감적 반응을 다섯 가지 수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반응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상담자의 공감 표현을 측정하는 도구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 3) 생체학적인 방법

생체학적인 방법은 비언어적, 생리학적 특징 등을 바탕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감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앞선 방법들이 피험자의 언어반응에 근거하기 때문에 피험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과 달리 피험자로부터 상당히 일관성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생체학적인 방법 중 맥박 수, 발한, 혈관의 수축 등과 같이 생리학적인 특성을 이용한 실험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주 활용되지 못하는 반면, 얼굴 표정, 몸짓, 음성 등의 비언어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은 관찰이 가능한 행동이므로 적절한 관찰도구만 있으면 타인의 정서 반응에 대한 자료를 비교적 수월하게 수집할 수 있다.

얼굴 표정을 바탕으로 정서를 판별하는 대표적인 측정도구로는 에크만, 프리젠

과 톰킨스(Ekman, Friesen, & Tompkins, 1971)이 개발한 표정으로 나타난 정서 채점기법(Facial Affect Scoring Technique: FAST)이 있다. 표정 해독자는 피험자의 얼굴 사진을 보고 이마, 눈썹, 눈꺼풀, 눈, 코, 입 등 얼굴 표정의 특징을 바탕으로 특정 정서를 확인한다. 눈썹과 이마, 눈과 눈꺼풀, 뺨과 코와 입과 턱 아래로 얼굴의 영역을 나누고 얼굴의 세 가지 부위에서 관찰한 내용에 점수를 부여한다. 그런 후 FAST 도감에 있는 준거 사진들과 대조하여 FAST에 있는 기본 정서와 짝을 맞춰 최종적으로 피험자가 표현한 정서를 확인한다.

### Ⅲ. 음악 관련 공감 연구

#### 1. 선행연구 고찰

음악과 관련된 공감 연구는 인간의 공감능력에 끼치는 음악의 효과에 대한 상관관계연구(Kokal, et al., 2011; Overly & Molnar-Szakacs, 2009)와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Kirschner & Tomasello, 2010; Rabinowitch, Cross & Burnard, 2012)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버리와 몰나르-자카스(Overly & Molnar-Szakacs, 2009)는 음악적 소리는 청각적 시그널로 감지되는 것 뿐만 아니라 청각적 시그널 뒤에 있는 감정과 관련된 두뇌 부위를 자극하여 복합적인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거쳐 감지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기능을 하는 거울 신경계(Mirror Neuron)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거울 신경은 우리의 뇌가 직접 실행을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동작을 재현하게 한다. 인간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바로 거울 신경의 덕분이다. 인간의 공감능력이야말로 인간 뇌에 거울 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버리와 몰나르-자카스는 음악은 다른 사람 또는 집단의 존재에 대해 청각적으로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음악 감상은 청각적으로 즐거운 시그널일 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 함께(being together in time)’라는 느낌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그룹 연주 활동도 공감능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룹으로 연주하는 과정에서 ‘모방(imitation)’, ‘싱크로나이제이션(synchronization)’, ‘공유된 경험(shared experience)’ 등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공감능력을 기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코칼(Kokal)과 그의 동료들(2011)은 싱크로나이즈드 드러밍(synchronized drumming)과 공감적 행동 간의 상관성 연구에서, 싱크로나이즈드 드러밍 활동이 뇌의 학습, 기억 및 감정과 관련된 미상핵(caudate nucleus)을 자극하여 공감적 행동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드럼 동아리와 드럼 그룹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파트너가 문제에 처하게 되었을 때 도와주려는 성향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었다. 코칼은 이 연구를 통해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등과 같은 집단음악활동을 통해서도 공감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키르쉬너와 토마셀로(Kirschner & Tomasello, 2010)는 4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음악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은 공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호의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달리 간단한 이야기에 맞춰 노래, 타악기 연주, 신체표현을 하는 음악 활동을 하였다. 키르쉬너와 토마셀로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며 신체표현하는 활동이 긍정적인 기분과 감정이 일어나도록 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음악은 서로 단합하고 유대감을 가지게 하여 궁극적으로 친사회적 행동과 협동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 2. 음악 그룹 상호작용 프로그램

라비노비치, 크로스와 버나드(Rabinowitch, Cross & Burnard, 2012)는 음악 그룹 상호작용(Musical Group Interaction(MGI)이라는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MGI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MGI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그룹 음악활동에 참여하며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공감능력을 키우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MGI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교육요소는 ‘공감능력 향상 음악 요소(Empathy-Promoting Musical Components, EPMCs)’라 불리는 요소들이다. EPMCs는 어린이들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되는 요소로서, 여기에는 동시성(Synchrony), 모방(Imitation), 모호함(Ambiguity), 목적 공유(Shared intentionality), 공통 주관성(intersubjectivity)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MGI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음악 게임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공감능력을 길러준다(Rabinowitch, 2012). 음악 게임에는 EPMCs가 반영되어 있으며 요소별로 음악 게임이 분류된다(<표 1>).

<표 1> MGI 프로그램의 EPMCs와 음악 게임

| EPMCs                            | 음악 게임의 특징                    | 음악 게임 예시                                                                                                                                             |
|----------------------------------|------------------------------|------------------------------------------------------------------------------------------------------------------------------------------------------|
| 동시성<br>(Synchrony)               | 일정박을 인지하며 동시에 움직이기           | <b>리듬 즉흥연주(Improvising rhythm).</b><br>그룹이 함께 리듬 즉흥연주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한 명 또는 몇 명이 리듬을 계속해서 바뀌어나가며 즉흥연주를 하는 동안 그룹은 동시에 이를 따라 즉흥연주를 한다.                  |
| 모방<br>(Imitation)                | 음악적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또는 느리게 반복하기   | <b>거울 매치 게임(Mirror match game)</b><br>원으로 둘러앉고 각 참여자는 음악의 짧은 프레이즈를 연주한다. 그 다음 참여자는 이 프레이즈를 똑같이 따라서 반복하거나 또는 어느 것을 연주하였는지 알아맞힌다.                      |
| 모호함<br>(Ambiguity)               | 음악의 모호한 특성을 경험하기             | <b>전사하기(Transcription)</b><br>그룹으로 함께 짧은 대화를 만들어 적은 후에 이를 음악으로 옮겨 표현해본다.                                                                             |
| 목적 공유<br>(Shared intentionality) |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룹으로 함께 작업하기 | <b>그룹 작곡(Group composition)</b><br>하나의 음악작품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발표 과제가 주어지면 그룹 구성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맡아 과제를 수행한다.                                                     |
| 공동 주관성<br>(Inter-subjectivity)   | 음악을 통한 서로의 마음 읽기             | <b>음악적 마음 읽기(Musical mind reading)</b><br>가능하면 짝 활동으로 하는데, 각자 주제(예. 동물, 분위기 등)를 고르고 함께 즉흥연주를 한다. 자신의 짝이 고른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과제로, 짝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추측해본다. |

라비노비치(2012)는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초등학교에서 8-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MGI 프로그램을 1년간 적용·운영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험 연구하였다. 주1회 1시간씩 9개월에 걸쳐 실험집단에는 MGI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음악을 포함시키지 않고 게임 활동을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 도구로 브라이언트의 정서공감척도(IECA)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MGI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 어린이들이 통제집단의 어린이들보다 공감능력지수가 훨씬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 IV. 음악에서의 공감교육을 위한 제언

음악에서도 공감은 중요한 개념이자 필수적인 요소이다. 문학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작품의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심리적 내면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음악에서의 공감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오롯이 음으로만 음악적 느낌을 표현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음악에서의 공감의 유형은 일반적인 공감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차원에서 음악작품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공감과, 사회적 차원에서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 간에 공유되는 정서적, 의사소통적 공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음악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음악지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의 세 가지와 같다. 첫째, 모방, 싱크로나이제이션(synchronization), 협력 등과 같은 공감교육을 위한 핵심요소를 사용한다. 음악교사들은 이미 공감교육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음악수업에서 실행하고 있다. 유아부터 음악 전공자까지 음악교육 프로그램에서 모방은 음악학습과정의 자연스런 부분이다. 일반 음악수업이든 앙상블 연주 수업이든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하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음악수업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실천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먼저 음악교육이 공감의 문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음악적 혹은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공감교육의 핵심요소를 경험하도록 하는 전략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그룹 음악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음악활동에서 음악적 문제는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그룹 작곡 활동과 즉흥연주 활동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룹 작곡과 즉흥연주는 모두 창의성, 탐색, 타인에 대한 배려, 의사 결정이 포함된 활동이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만드는 문제를 접할 때, 학생들은 그들의 창의성에 접근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인지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인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한다. 이와 같은 협동 작업에서 불화가 종종 생길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한 가치와 배려를 생각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업이 계획된다면, 그룹으로 음악을 만드는 활동은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공유된 경험(shared experience)’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학생들은 음악에 몰입할 때 인지적인 과정 뿐만 아니라 감정적 측면이 포

함될 경우에 보다 의미 있는 음악적 경험을 하게 된다. 공유하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 모두의 역할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고 개별적 다양성도 존중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룹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면 그만큼 연주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 학생들이 공유된 경험을 갖기 위해 교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공동의 연주 목표를 세우고 연습하며 연주 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격식을 갖춘 연주 공연일 필요는 없지만 청중이 더해진다면 공유된 정서적 경험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공연 후에 그룹의 공동 목표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해 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에서 음악적 행동이 실제 상황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공감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음악활동이 실제 생활에서도 공감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먼저, 인지적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래 부르기나 노래 만들기(songwriting) 활동을 할 수 있다. 노래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다루고 전달한다. 언어와 음악은 유사한 표현 방식을 공유하고 있어 서로 연관된 의사소통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언어와 음악이 결합된 노래는 언어의 인지적 특성과 음악의 감정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정현주, 2005). 노래의 가사를 통해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거나 감정을 수용하는 작업이 가능한데, 공감이나 타인 이해에 대한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선곡하여 부르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가사의 의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눔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도울 수 있다. 또한 타인에게 공감했거나 자신에게 배려나 연민을 보여준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노래에 가사를 바꾸거나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활동도 공감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Laird, 2015).

정서적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감상활동을 할 수 있다. 감상은 사람들이 대부분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활동이라는 점에서 정서적 공감을 경험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음악을 통한 정서적 경험은 실제 삶의 리듬, 즉 긴장과 이완의 과정을 거치는 정서적 경험과 유사하므로 이러한 감상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음악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악기 연주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그룹 연주경험은 음악적 혹은 비음악적으로 의사소통, 인지발달, 자기표현 등을 자극하는 음악활동이다. 그룹 연주는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책임을 수행하는 과

정을 통해 나와 너,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를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조정은, 2010). 악기 소리의 어울림을 위해 타인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읽어야 하므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흥연주도 의사소통적 공감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이다. 즉흥연주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상호작용할 수 있고, 연주를 결정하거나 모방하는 활동을 통한 관계 속에서 공감의 경험을 유도할 수 있다.

## V. 나가기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인한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대인 간의 공감적 이해와 공감적 반응과 공감적 태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감정과 관점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따뜻한 인간관계를 위한 주요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 우리가 경험하는 음악은 변함이 없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접하는 음악의 내용과 형태가 다를지라도 음악에 대한 인간의 느낌과 감동의 본질은 서로 같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행복함을 느끼며,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개념과 구성요소, 관련 선행연구 및 프로그램 사례 고찰을 바탕으로 음악에서의 공감교육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공감의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공감이 향후 음악교육에서 의미 있는 연구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 교육자들이 음악을 통한 공감교육의 필요성과 공감이론의 적용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학교에서 음악교육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음악을 통해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방향, 교수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게세코 폰 뤼프케 (2010). **두려움 없는 미래(Future comes the Crisis)** 박승역, 박병화 역. 서울: 프로네시스.
- 박민 (2012).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정신병리와 심리재활에의 함의. **재활심리연구**, 19(3), 387-405.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정재영 (2010). 공감의 컨셉이 미래를 바꾼다. **LG Business Insight**, 28-42.
-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정은 (2010). 악기연주 활동을 통한 시설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7(7), 77-99.
- 조한익, 이미화 (2010).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1), 139-158.
- 최미영 (2017).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교과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음악교육연구**, 46(2), 157-178.
- Barrett-Lennard, G. F. (1981). The empathy cyc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2), 91-100.
- Bryant, B. K. (1982). An Index for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Cross, I., et al. (2012). Empathy and creativity in group musical practices: Towards a concept of empathic creativity. In G. E. McPherson & G. F. Welch (Eds.), *The Oxford Handbook of Music Education (Vol. 2)* (pp. 334-3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e Wied, M., Met al. (2007). Bryant's Empathy Index.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3(2), 99-104.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Empathy and its development*.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eman, D. (2006).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 Gordon, M. (2009). *Roots of empathy: Changing the world child by child*. New

- York: The Experiment.
- Feshbach, N. D. (1975). Empathy in children: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5, 25-30.
- Kirschner, S. & Tomasello, M. (2010). Joint music making promotes prosocial behavior in 4-year-old children.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1(5), 354-364.
- Kohut, H. (1978). *The search for self*.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okal, I., et al. (2011). Synchronized drumming enhances activity in the caudate and facilitates prosocial commitment-if the rhythm comes easily. *PLoS One*, 6(11), 1-12.
- Laird, L. (2015). Empathy in the classroom: Can music bring us more in tune with one another? *Music Educators Journal*, 101(4), 56-61.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very, K. & Molnar-Szakacs, I. (2009). Being together in time: Musical experience and the mirror neuron system. *Music Perception*, 26(5), 489-504.
- Piaget, J. & Inhelder, B. (1969). *The psychology of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 Rabinowitch, T. (2012). Musical games and empathy. *Education and Health*, 30(3), 80-84.
- Rabinowitch, T., et al. (2012). Long-term musical group interac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mpathy in children. *Psychology of Music*, 41, 484-498.

## ABSTRACT

# A Study on Empathy in Music Education

Moonjoo Seog · Kyung-Suk Moon · Mi Young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reliminary data on empathy in the field of music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e types of empathy and its measures were first investigated. Recent studies of empathy relating to music were then reviewed. Finally, based on previous studies, some thoughts on teaching principles and music activities with the potential to promote empathetic ability were suggested.

There are three different types of empathy: cognitive, emotional, and compassionate. Researchers have used various approaches to measure empathy, including picture-stories, somatic and physiological measures and self-report by questionnaires.

Studies of empathy related to music are largely categorized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consists of correlation studies that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empathetic ability and the effect music has; the second group examines music programs designed to enhance empathetic ability.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suggests four teaching principles that promote empathetic ability: the use of the key elements for empathy education (imitation, opportunities to be synchronous with others, cooperation), the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group music-making, and the encouragement of engagement in shared affective experiences. Also, the study discussed music activities for improving empathetic ability.

Key words: empathy, types of empathy, measures of empathy, empathy in music

투고일: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11일(10월 15일), 게재확정일: 11월 1일